

# 與 “서민 주거 안정 중요 시점” 변창흠 경질론 선 긋기

### 원내대표단 靑 오찬 간담회… ‘LH 직원들 투기 의혹’ 사태 수습 주력 2·4 공급 대책 흔들림 없는 추진 강조…공직자 부패근절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에 일단 선을 그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달린 대형 약재로 여론 지형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일단 대책 마련을 통한 사태 수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하는 건데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라며 “변

장관 경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단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변 장관 거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경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단순히 대통령의 언급을 제가 못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4 부동산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의 취지를

생각해달라”고 했다.

진상 규명 이전에 변 장관 거취 문제부터 조점이 맞춰진다면 부동산 정책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서민 주거 안정에 중요한 시점”이라며 “변 장관이 여기에 대해 명백하게 해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해나가는 것이고, 본인의 말대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의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변 장관 퇴진 요구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오는 11일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뒤에도 여론이 악화한다면 변 장관 경질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벌써 일부에선 이른바 ‘음침마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이날 MBN에 출연,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라며 “변 장관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퇴해야 하지만, 시기는 엄정한 조사 발표 직후 대통령이 결단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재보선이 다가올수록 변 장관의 거취를 놓고 당과 청와대 간 온도 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진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바꾸면서 ‘메신저 체인지’ 효과를 노렸던 것이

데, 이번 사태로 사실상 그 효과가 상실됐다”며 “민심이 빨리 수습되지 않는다면 거취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 입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을 통한 투기억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LH 전면 개혁,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같은 특단의 대책도 거론된다. 당 윤리감찰단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양이원영 의원 모친, 김경만 의원 배우자 등 당내 선출직 공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검찰, LH 의혹 수사 회의 박영석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자간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영선 ‘공세모드’ 전환

###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셀프보상 의혹”…“안철수 지지자 행보” 저격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본격 행보에 나섰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도 의원실 보좌진을 박 후보 캠프에 파견해 힘을 보태는 등 재보궐선거 총력전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이번 선거에 대해 “서울에 몰입하고 서울만을 위해 준비한 후보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가 콩밭이 잘 안 될 것 같으니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나온 후보나, 명확한 구도”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가장 큰 변화는 돌봄 영역이 크게 확대돼 공적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두자고 주장하다가 불명예 퇴진한 후보에게 진정한 돌봄을 기대할 수 있나”라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겨냥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새정치하겠다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같이(之)자 행보를 했다”고 꼬집었다. 전남에는 박 후보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오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셀프보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21분 콤팩트 도시’ ‘K-접종’ 등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알리는 데 주력해온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라는 대형 약재를 만난 데다 야권이 단일화될 경우 누가 야권 단일후보가 되더라도 박 후보에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위기가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송영길, 당권레이스 시동

### ‘누구나 집 프로젝트’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10일 “당 대표가 되면 집값의 10%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민주당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인구가 사실상 줄어가고 있고 이 상황이 지속하면 지방에 가장 큰 타격이 온다”며 “해결책으로 기존 집값의 10%만 가지면 집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소병철, 경전선 전철화 순천시 의견수렴 누락 해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최근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순천시의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됐다’는 지적과 관련, 10일 국토교통부에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지난 80여 년간 단 한번도 개량하지 않았던 광주-순천 구간을 전철화해 광주에서 부산 간 이동시간을 2시간대로 단축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사 과정에서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순천시민

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소 의원은 이날 긴급하게 순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도심 지상부를 통과해 소음과 분진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사고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을 통과시키면서도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사전행정절차를 누락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 이개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해안철도 반영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합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10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군산-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당정간담회’에 당 균형발전특위 상임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 의원은 “정부가 U자형 순환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유독 군산-목포간 서해안철도는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철

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남·광주권역 광역철도와 관련하여 “광주-나주, 광주-화순 등 남부권에 대한 건의는 반영되어 있으나 여기에 광주-장성, 광주-담양 등 북부권 광역철도를 추가로 반영하여 광주를 중심으로 한 광주-전남 광역철도 순환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강은미 “포스코 하청 여성노동자 직업성 질환 심각”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이 10일 “포스코 하청 여성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최근 10년 포스코 원-하청 97개사 중 사자 2만5000여명 26개의 특정질환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포스코 원청 직원 의 경우 전국 직장인 대비 여성은 다발성골수종 및 양성형질암(7.8배), 중피연조직암(6.4배), 눈-뇌 및 중추신경계통암(5.1배), 방광암(4.8배) 등 12개 암질병 발병율이 높고, 남성은 혈액암(2.7배), 피부암(1.4배), 신장암(1.4배) 등 8개 암질병 발

병율이 높게 나타났다. 포스코하청업체(97개사 25,324명) 여성(1529명)의 경우 전국직장가입자 여성보다 혈액암은(11-13년도 발병) 15.5배, 루게릭병 11.5배, 눈-뇌 및 중추신경계통암(8.8배), 중피연조직암(4.7배), 폐암(3.4배), 호흡기흉과 내기관암(3.3배), 입술구강암(3배) 등 17개 암질병 발병율이 높았다. /오광록 기자 kroh@



##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은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 오피스텔, 신축부지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구. 14평)
- ▶ PF 28억 확정, 지하 1층 공사 중
- ▶ 매매 - 20억(토지 17억 + 공사비 3억)
- 문의. 010-3605-5000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충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김건너면 통광주빌딩 내